



주요논문초록

『직업적 위해와 임신』

저 자 : Jun Zhang, Wen-wei Cai, David J. Lee
출 처 : Am J Ind Med 1992;21:397-408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의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여 직업적 위해 폭로와 임신분만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표본은 1875명의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과 선천성결손(birth defect)이 있는 신생아와 동수의 대조군으로 하였다. 산모의 직업성 방사선 조사와 화학물질, 소음, 살충제의 폭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혼란변수를 조절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임신중/전의 방사선 조사와 사산, 선천성 결손, 부당경량아(small-for-gestational-age)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었다. 임신중/전 화학물질의 폭로는 사산, 조기 신생아 사망, 선천성 결손, 조산아,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었다. 임신중의 살충제에 폭로된 산모는 부당경량아와 절박유산의 위험성이 높았고, 임신중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사산의 위험성이 높았다. 아울러 임신초기에 살충제와 임신전 화학물질에 폭로된 여자에게서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기형아 수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폭로와 분만시 태아의 사망은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연구에서의 기억력에 의한 편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진전된 연구를 요한다.

『분진에 폭로된 중국 철광산 및 도기 제조 작업자의 사망률』

저 자 : Jingqiong Chen, Joseph K.McLaughlin, Jun-Yue Zhang, B.J.Stone, Jiamo Luo, Rong-an Chen, Mustafa Dosemeci, Suzanne H.Rexing, Zhien Wu, Frank J. Hearl, Michael A.McCawley, William J.

Blot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3):311-316

중국 중남부 철광산 및 도기 제조공장에 1972-1974년 기간동안 근무한 약 68,000명에 대한 코호트연구에서 무수규산과 다른 분진의 서로 다른 농도에 폭로된 작업자중 암과 기타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1989년 12월 31일 추구조사결과 6,19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중국 보통사망률에 의한 기대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폐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6배에 이르렀으며 비암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8%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주로 30배 이상의 진폐증에 기인한다. 폐성 심질환과 비암성 호흡기질환의 비율은 분진 폭로량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전체 암사망률은 철광산 및 도기 제조작업자에게서 높지 않았다. 주석광산의 광부를 제외하고 폐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았으며 높은 농도에서의 분진 폭로와 폐암의 위험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폐암의 위험은 규폐증 작업자에게서 22% 높았다. 연구결과는 중국 철광산 및 도기 제조 작업자의 작업위해에 의해 호흡기질환이 지속되거나 암위험 아직 분진작업장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에서의 관절질환 및 요통의 유병』

저 자 : Cecil M.Burchfiel, John A.Boice, Beth A. Stafford, Gregory G.Bond

출 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2):129-134

화학제조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통과 관절질환의 유병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7-1989년 사이 medical surveillance examination중에 설문서 조사를 하였다. 설문에 답한 5,903명중 35.5%가 전년도에 요통 또는 관절통을 호소하

였으며 30일이상 요통이 지속된 경우가 5.3%인 반면 부종을 수반하거나 또는 관절통을 호소한 경우는 19.3%에 달하였다. 의사를 방문한 경우가 10.5%이고 요통과 관절통으로 인한 방문은 11.1%에 이르렀다.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가 들에 따라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1). 요통과 관절통의 교정치 않은 유병률은 남자와 백인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 인종, 직업을 교정한 후 회귀분석한 결과 남

녀간에 유병률의 차이가 줄었거나 역전되었다. 비슷하게 다른 변수를 조정하였을 때 인종간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요통은 관리자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요통과 관절질환은 기술자에게서, 의사방문을 요하는 요통은 직공(craftsmen)에게서 많았다. 요통과 관절질환은 나이와 직업에 따라 매우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성과 인종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차이를 보였다.



영세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지도 무료실시

당 협회는 6. 1-7. 30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전국 3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이들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개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92-9호)에 의거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운영규정 및 정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6. 8 노동부로 부터 승인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가 실시될 계획이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당 협회 정도관리실에 서는, 검진기관들의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검사능력 향상과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검진기관의 분석능력 및 방법의 측정평가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교육과 기타 검사능력 향상에 필요한 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92년도 하반기 정도관리는 9. 1-10. 30까지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임상검사중 9개항목 중금속 2개항목 이다. 협회는 '92정도관리 실시계획 및 근거 규정을 각 검진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 정도관리 위원 명단

차철환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임중	여의도 성모병원 직업병과
염용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여의도 성모병원 산업의학센터
이병국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노재훈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선무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임상병리과
채범식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문덕환	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정철	고려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분석실
이주섭	한양대의대 임상병리과
김철용	협회 본부
김석원	협회 중앙분석실
노영만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센터
김현욱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